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2회차

2016년 11월 20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감독 확인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깔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연습지나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공 통 문 항

<가> 나는 현대사회의 가장 놀랄 만한 기만, 즉 집단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흑주술(black magic)을 감추기 위한 숫자 조작의 백주술(white magic)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부기상의 환상(accounting illusions)이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이다.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알리바바의 주술과 같은 이 조작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요소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작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학술 연구도, 문화도, 여성들의 가사 노동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반대로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항목이 단지 측정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회계는 마이너스 기호를 인정하지 않으며 완벽할 정도의 비논리적인 태도로 해로운 것과 긍정적인 것을 모두 함께 계산해버린다.

경제학자들은 공공 서비스와 사적 서비스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생산물과 서비스의 가치를 국민총생산으로 합계한다. 그렇게 하면 공해도 공해대책도 객관적으로 유용한 재화의 생산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알코올, 담배, 핵탄두의 생산도 학교나 연주 홀의 신축, 공원 신설과 마찬가지로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킨다. 손해나 가치하락과 같은 비용은 대개 계정에 표시되지 않지만, 표시된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비도 장부상으로는 소비자 지출로 기록된다. 그것은 생산 그 자체를 위한 생산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주술적 목표의 논리적 결과이다. 생산된 것, 계량 가능한 것 모두는 긍정된다. 우리 도시의 대기 맑음 정도가 10년 사이에 30%나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회계사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이 감기약, 마스크, 전구, 안경 등의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이상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게다가 생산 및 사회적 부의 증가로 존재한다.

<나> 무엇이 행복일까? 행복의 뜻을 알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우리는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행복한 상태를 조리 있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돌이켜 본다면, 일반적으로 행복은 외부적 환경과 내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직업, 소득, 안전, 사회적 관계와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것은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가치관은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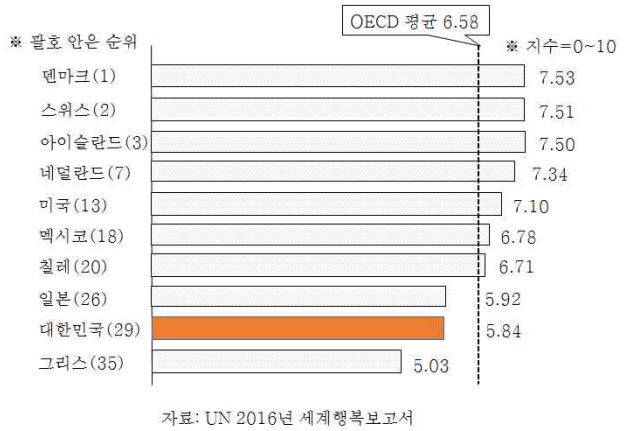
특히 유전적 요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일생 동안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후천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천적 요인은 어떤 문화 환경과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행복의 조건을 훨씬 용이하게 찾아내며, 성공 지향적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삶에서 행복의 가능성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비단 문화나 교육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좀 더 작게는 가족 간의 관계나 동료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사회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이다. 재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어울려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고 할 때, 그들의 어울림이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의 가능성을 더 높게 가지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외부적 여건이 같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의 정도를 다르게 느끼게 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 ‘행복’은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이것은 행복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경제적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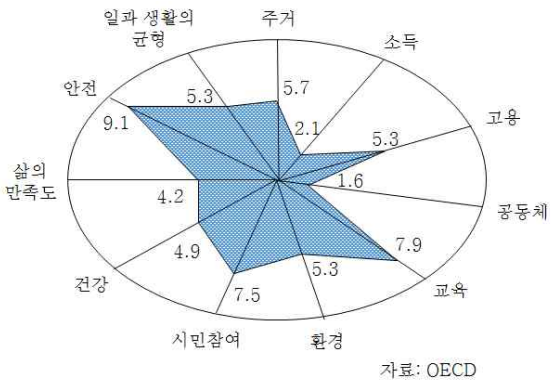
유엔이 올해 초에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평균 5.84점(0점~10점 척도)으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만 보면 최하위권(29위)이다. 각각 세계 11위와 28위(2015년)인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은 '행복 없는 사회·경제'에 빠져 있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행복 결핍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소득뿐 아니라 행복에서도 불평등하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응답자의 '행복감 표준편차'(행복불평등지수)는 2.15로, 157개국 중 96번째다. 한국인들 사이에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격차가 매우 크다는 뜻이다. OECD 안에서만 보면 행복불평등지수는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즉 행복불평등이 5번째로 크다는 의미다.

사실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12년 0.307)에서는 경제력이 비슷한 OECD의 다른 나라에 견줘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행복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OECD 주요국 행복도 순위



[그림 2] 한국 행복지수 주요 항목별 점수

1.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왜 <다>([그림 1], [그림 2] 포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가>

우리는 건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괴한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선언하지 않는다. 우리는 낡은 허위를 폐지한다. 현대인은 그저 다리를 놓을 뿐이다. 다른,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미래의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볼지 모르겠다. 이쪽 강변에 언제까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점 없는 반동으로 구원받기보다는 혁명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낫다. 혁명의, 위대한 사회변혁의 종교만이 내가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종교다. 너의 세대가 되면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라. 거기에서는 일찍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사랑했으니 아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자유, 우애와 맹세하고 너의 여행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1855년 런던 교외의 자택에서 열린 신년 축하 모임에서 게르첸(A.I. Gertsen)은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인사말이 끝났을 때 아들 알렉산드르는 울음을 터뜨리며 게르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초청객들 대다수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자신들의 고국 생각에 잠겼다. 게르첸 자신도 초청객들도 고국에서 쫓겨난 망명자였던 것이다.

서두에 인용한 게르첸의 말은 조선 민족의 앞선 세대가 우리들에게 남긴 말과 상통한다.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차세대에 기탁하고 세상을 떠났던가. 1970년 20살 대학생이었던 나는 이 말을 아들의 입장에서 읽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읽고 있다. 물론 나 자신이 게르첸처럼 살아왔다는 오만한 감정은 없다. 오히려 내가 받은 감명에는 쓴맛이 섞여 있다. 그것은 '흐르는 세월의 잔혹성'이라는 맛일지도 모르겠다. 뛰어난 역사가만이 지닌 얼음 같은 냉철함으로 카(E.H. Carr)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아들 알렉산드르에게 끼친 그 신년 축하 모임의 감동적인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세상의 여느 자식들처럼 그도 부친의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는 부친처럼 앞뒤 재지 않는 낭만적인 1830년대의 공기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영국 빅토리아조의 견실한, 들뜬 1850년대에 성장했다. 혁명도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도 지도 위에서 보는 하나의 명칭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결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어는 점차 그의 집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일조선인 1세와 2세, 2세와 3세 간에 새겨진 단절의 얘기로 읽을 수도 있다. 아니 재일조선인만이 아니다. 게르첸 부자의 예는 이미 19세기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그 이후의 근대 디아스포라 모두에게 공통되는 세대 단절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 토니오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흐려졌다. 그들 둘이서 오늘 오후에 잠시 함께 산보를 하자고 했던 사실을 한스는 잊었단 말인가? 한스는 그것이 이제야 비로소 생각났단 말인가? 그런데 그 자신은 그 약속을 한 이래로 거의 잠시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고대해오지 않았던가! 사실 토니오 크뢰거는 한스가 그들 둘이서 하는 이 산보에 자기가 생각하는 절반만큼의 비중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토니오가 한스를 좋아하고 있었고 한스로 인해 벌써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는 패배자이며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박하고도 가혹한 교훈을 열네 살 난 영혼은 이미 삶으로부터 터득하고 있었다.

"난 요즘 놀라운 것을 읽었어, 뭔가 굉장한 거야!"

하고 토니오가 말했다. 둘은 걸어가면서, 뮐렌 가에 있는 이버젠 씨의 가게에서 10페니히를 주고 산 한 봉지의 과일 사탕을 나눠먹고 있었다.

"한스, 너도 그걸 읽어봐라. 그건 실러의 『돈 카를로스』라는 작품이야. 내 그 책을 빌려줄게, 네가 원한

다면 ….”

“아냐, 그만 둬, 토니오!”

하고 한스가 말했다.

“그건 내겐 어울리지 않아. 난 계속 말[馬]에 관한 책이나 읽겠어. 너도 왜 알잖아, 거기에는 근사한 사진들이 정말 많단다!”

… (중략) …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쓰는 모든 작품이 인쇄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돼도 그것이 한스에게 아무런 감명을 주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하긴 그래도 아무런 감명도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고말고!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아홉 개의 교향곡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최후의 심판’을 순전히 혼자서 이룩해 내었다손 치더라도, 너는 영원히 나를 무시할 권리가 있다. 내 머릿속에는 내가 오랫동안 새로 기억해 낸 적은 없지만 내게 아주 친숙하고 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서로 통하는 시행(詩行) 하나가 떠올랐는데,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가 그것이었다. 나는 이 시행에서 뜻하고 있는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다> 타자(他者)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용해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레비나스(E. Lévinas)가 말하는 타자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의 삶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다. 타자의 출현은 단지 친밀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타자는 나에 대해서 완전한 외재성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이다. 자아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타자로부터도 자기성을 분리함으로써 스스로 개별적인 자기성을 확립할 수 있다.

한편 타자는 이 세계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추구하는 나의 이기심을 꾸짖고, 타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은 타자 속에서 나를 상실해 버리는 소외 현상을 가져오지 않는가? 레비나스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벗어나 외부로의 초월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는, 타자는 인간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를 열어 주고 지배 관계를 벗어나 서로 섬기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존재라고 본다. 내가 타자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타인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때, ‘환대(歡待)로서의 주체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환대를 통한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보다 타자의 입장에 서 보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2.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